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녹) 연중 제 2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1월)

#### 복음화 지향: 교리 교사들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수난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2,1-5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화답송** 시편 96(95),1-2 7.22-3.7-8 7.9와 10 7.11(◎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4-11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영성체 후 묵상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대로, 하늘 나라 잔치에 함께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 연중 제 2 주일

### ♣ 카나 첫 기적의 의미 - 정천봉 베네딕토 신부 ♣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성모님께서서는 "포도주가 없구나!" 하시면서도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빈 물독에 일꾼들이 채운 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어 축제의 분위기를 승화시키고 잔치의 기쁨을 계속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의 첫 기적을 혼인 잔치를 통해 나타내시며 가정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은 크고 작은 이유들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복음 카나의 표징은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첫 기적의 장소가 굳이 혼인 잔치의 자리이고 보면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야말로 어머니 마리아의 시급한 요청과 기도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카나의 기적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깊은 믿음과 일꾼들의 순종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찾아야 하는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힘이며 주님의 영광을 처음 드러내신 가정은 은총의 출발점입니다.

무한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혼인 잔치의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님께 간청 드리는 오늘,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위해 두 손을 모으며 자애로우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저희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빌어주시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길로 언제 어디서나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 | 연중 제 2 주일 복음 필사 |



'카나에서의 혼인잔치' 지오토 디 본도네 작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요한 2,11).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2년 설 합동 위령미사(1월 30일, 주일)**

미사 30분 전부터 위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 전 연도 중 기억하고 싶은 연령 신청 안내**

성전 입구 안내테이블에 비치된 설 합동 위령미사 봉투에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및 마감일 : 성전 입구 교무금함에 1월 23일(주일)까지 제출

※ 지역 내 급격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설 합동 위령미사 후 행사 대신 떡과 음료를 나누어 드립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지내는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

※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2021년 3월 19일~2022년 6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AMORIS LAETITIA FAMILY" YEAR)를 보내면서 혼인한 부부들에게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이 시기에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혼인한 부부들 모두에게 사랑의 인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기도와 "빵을 떼어 나누는"(사도 2,42) 일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당신의 격려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개개인과 모든 혼인한 부부와 모든 가정이 놓인 저마다의 상황에 교황님께서는 겸손과 애정과 열린 마음으로 동반하고자 하십니다.

한국어 서한: <https://www.cbck.or.kr/Notice/20220003?gb=K1200>

영문 서한: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21/documents/20211226-lettera-sposi-anno-famiglia-amorislaetitia.html>



(사랑의 기쁨 ebook 보기 - 이미지 클릭)

**2022년 제 30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1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회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담화문: <https://www.cbck.or.kr/Notice/20211133?gb=K1200>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bckmedia/222620574248>

후원하기: <https://mmwebhsit.cokr/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rK4ll-tpwXXaozh/3l3nbCw==>



(홍보영상 - 이미지클릭)

**봉사자 모집**

지난 수요일(12월) 안경록(도미니코)님과 안후순(소화테레사)님 덕의 진입로 중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에 함께 하시고 지원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복구 작업을 다음 주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허준 안토니오(복지분과)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신부님 영명 축일(1월 28일) 기념 영적예물 안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영적예물을 1월 16일(주일)에 성당 입구에 있는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 제 2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㉘  
어디서든 '환경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㉙  
EM으로 만든 비누 사용해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㉙)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https://anu.zoom.us/j/5860472074?pwd=L1JMeGxUTUtsdVROMXp1WURONDFVZz0>)

**주일미사 의무 관면 (온라인 미사)**

크리스토퍼 대주교님은 2020 년 3 월부터 팬데믹 기간동안 주일미사 의무에 대한 관면을 허락하셨습니다. 미사 참례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미사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Catholic Voice**

<https://www.catholicvoice.org.au/mass-online/>

**Mass for you at Home**

<https://massforyou.com.au/>

**Mass on Demand**

<https://www.youtube.com/user/cathnews>

**평화방송 매일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Zynea6G3hlgMA1NEQ-zw>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주일 미사 참례자수

1 월 2 일	성인 28 아이 10	1 월 9 일	성인 36 아이 8
---------	-------------	---------	------------

우리들의 정성 (1 월 8 일(토)~14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주진호			
교무금 : \$530 (13가정) / 봉헌금 : \$20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 (1 월 16 일, 연중 제 2 주일) 주정자 루치아, 공성은 루실라  
(1 월 23 일, 연중 제 3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6 일) 요한회 → (23 일) 마르코회 → (30 일) 사목회

대교구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① 실내에서 1 명당 2 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12 세 미만 제외)
-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ACT Health COVID-19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

코로나 19 유증상자 및 확진자를 위한 안내(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8048&page=1](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8048&page=1))

♡ 구민식 안토니오(17 일) 형제님과 문혜선 아녜스(21 일) 자매님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